

 국토교통부		<b>보 도 자 료</b>	
		배포일시	2017. 10. 11.(수) / 총 2매(본문2)
담당 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과장 김기대, 사무관 임창호, 주무관 김정원 ·☎ (044)201-3828, 3829
보 도 일 시		2017년 10월 12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0. 11.(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 국토부, 가을철 나들이 떠나는 전세버스 특별점검 실시 주요 관광지 찾아 현장 점검...속도제한·좌석안전띠 정상작동 등

- 단풍구경, 체험학습 등 가을철 나들이에 많이 이용되는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속도제한 준수 여부 등을 특별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단체이용객이 집중되는 가을 행락철(10월)을 맞아 전세버스가 많이 모이는 전국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 주요 점검대상은 전세버스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운전자의 음주운전, 재생타이어, 속도제한 등 안전기준 준수 여부와 좌석안전띠 정상작동 및 비상망치 비치 여부 등이다.
- 그동안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등 범정부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해 온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를 줄이는 데는 부족한 수준이다.
  - \* 사망자수(명): 5,114('78) → 13,429('91) → 5,392('12) → 4,762('14) → 4,292('16)
- 또한, 최근 버스관련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전세버스사고도 줄지 않고 있어 이에 대비해 전세버스 운행량이 가장 많아 사고 발생 위험이 큰 가을 행락철 전세버스 교통안전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전세버스 이용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나들이를 위한 버스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 가을철 전세버스 사고: 5,569 (31.9%, '14) → 5,979 (32.0%, '15) → 5,507 (28.4%, '16)

○ 이번 특별점검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전국 주요 관광지 등을 찾아다니며 강도 높은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 아울러, 최근 빈발하는 전세버스 대형 교통사고에 경각심을 갖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과 관련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널리 전파할 계획이며,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켜 안전운전을 해야 하는 중요성을 널리 알려 운전자의 안전운전 실천의지도 독려할 것이다.

\* 비상망치·소화기의 위치 및 사용방법 등 안내방송, 운행 전 운수종사자 건강상태·음주여부 등 확인,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보장, 운수종사자 교육 강화 등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전세버스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전세버스 이용 불안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 이용객도 “안전운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차내 음주가무 근절, 안전띠 착용 등 성숙한 교통안전문화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임창호 사무관(☎ 044-201-382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